

익산야간관광 3곳 선정

‘밤밤곡곡 100’에 미륵사지 미디어아트 페스타·서동축제·문화재 야행 등

익산시가 차별화된 야간관광 관광과 축제를 선보이며 대한민국 대표 야간관광지로 자리매김했다.

9일 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발표한 밤이 더 아름다운 야간 관광 명소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에 익산 관광지 3곳이 포함됐다.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은 매력적인 지역 야간경관이나 밤에만 체험할 수 있는 이색적인 프로그램을 소개해 야간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익산의 경우 △익산 미륵사지 미디어아트 페스타 △익산 서동축제 △익산 문화재야행 3개 행사가 당당히 100개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야간관광 축제도시로서의 위상을 드높였다. 전북(8개 선정)에서 3개 이상이 선정된 지자체는 익산이 유일하다.

먼저 밤하늘을 배경으로 독창적인 세계문화유산 체험을 보여준 익산 미



륵사지 미디어아트 페스타는 지난 9월부터 한 달간 성황리에 진행됐다. 세계문화유산인 미륵사지와 미디어아트 퍼사드를 접목해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며 누적 관광객 15만 명이라는 기록을 썼다. 야간경관이 아름답다는 입소문을 탄 미륵사지는 관람에 제한 시간이 없어 행사가 끝난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고 있다.

익산의 대표축제인 익산 서동축제는 주·야간에 걸쳐 관광프로그램, 이벤트 등이 운영되며 가족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들이 많아 큰 호평을 들었다. 특히 올해는 밤의 빛 속에서 치유할 수 있는 야간형 축제로서 안전과 편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아 성공적인 축제로 평가받았다.

/익산=이재춘기자



군산시는 지역주민과 함께 ‘실버커뮤니티센터 개관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소룡동실버커뮤니티센터 개관식

군산시, 고령자 밀집 주거지역·도시재생 통해 새로운 활력 기대

군산시는 9일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소룡동 주거 밀집지역에 실버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실버커뮤니티센터 개관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소룡동 실버커뮤니티센터는 고령자 밀집 지역인 소룡동 1393-62 일원에 약8억4천만원의 사업비로 지상1층 99.92㎡(약 30평)규모로 건립했으며, 어르신 건강케어, 복지증진 프로그램 등이 운영될 예정인 도시재생 마을 거점시설이다.

이날 개관식에는 강임준 군산시장과 김영일 군산시장 신영대 국회의원, 지역구 도의원 및 시의원을 비롯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는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되어 줄 거점시설 준공을 기념해 퓨전국악

을 비롯한 문화예술인 축하무대와 소룡어린이집 공연 등 식전공연을 진행했으며 도시재생사업 추진 경과보고, 표창장 수여, 테이프 커팅, 커뮤니티 내외부 라운딩 등으로 이어졌다.

또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드론 퍼포먼스, 플라멩코 등의 불거리도 한 대 어우러져 마을 잔치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이뤄졌다.

이정일 대신경로당회장은 “실버커뮤니티센터 개관에 이르기까지 아낌없이 지원해 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강임준 시장은 “지역사회는 주민의 참여와 협력으로 나아간다. 실버커뮤니티센터 개관 역시 여러분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었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곤기자

익산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에너지 부담 완화

4592명에 지원... 선불카드 8일부터·계좌 입금 10일부터

익산시가 취약계층의 에너지 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계층 난방비 3억 8,600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가스비, 공공요금 및 물가상승으로 인한 난방비 증가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취약계층에게 난방비를 이달부터 지원한다.

지급대상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이면서 본인 또는 가구원이 노

인, 영유아 장애인, 임신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이 포함된 세대가 지원 대상이며, 에너지바우처 등 타 난방비 지원을 받는 세대는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1인 세대 10만원 △2인 세대 15만원 △3인 세대 20만원 △4인 이상 세대 25만원으로 가구별 차등 지원한다.

난방유형에 따라 선불카드는 지난 8일부터 배부되고 있으며 계좌 입금은 10일부터 지급한다.

난방용 등유 LPG 연탄 사용 세대 선불카드 지급대상은 1,549명이고 도시가스 지역난방, 심야전기 등 계좌입금 대상은 3,043명으로 총 지급액은 3억 8,600만 원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11월은 다가올 겨울 추위에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시기라며 “이번 겨울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취약계층 모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과 동절기 자연재난 대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기자

익산시, 송산마을 마을회관 신축 준공

익산시가 용인면 송산마을 주민들의 생활환경 편의를 높여 줄 송산마을 마을회관을 준공했다.

‘송산마을 마을회관 신축사업’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지난 10월 노후된 건물을 철거하고 생활환경 개선과 공동체 문화생활을 위한 다목적 공간으로 새롭게 마을회관을 조성했다.

올해 4억 4,000만 원의 보조금을 투입해 3월부터 송산마을회 회의를 거쳐 주민들 다수의 의견을 수렴해 지상 1층, 연면적 113.80㎡의 건축 규모로

거실 주방, 회의실, 휴식공간 등을 갖췄다.

강태안 시장은 “마을 주민 모두가 화합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아늑한 휴식 공간을 마련해 주민 익산시 관계자들과 지역주민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송산마을회관 준공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며 “신축한 마을회관이 앞으로 송산마을 주민들의 편안한 쉼터가 되고, 주민들 간 화합과 소통



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매년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편의 증진을 위해 마을회관 및 모정 개보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익산=이재춘기자

익산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홍보·수거 단계 점검

익산시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고품질 재생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달부터 12월까지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제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제는 무색투명한 생수·음료 페트병에만 해당된다.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시켜 뚜껑을 닫아 일반 플라스틱과는 별도로 배출하는 제도다.

이번 집중 홍보 기간은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시행 3년 차를 맞아 주민 인식을 확산하고 참여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는 2020년 공동주택 우선 시행에 이어 이듬해 단독주택으로 확대 시행됐으며, 지난해 12월 24일 계도기간을 끝내고 전면 시행되고 있다.

특히 투명페트병은 별도 배출할 경우 장점을 뽐낼 수 있는 고품질 재

생원료다. 의류 신발, 가방 등 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만큼 적극적인 시민 참여가 필요하다.

시는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돕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배산체육공원, 중앙체육공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투명페트병 전용 재활용품 무인 회수기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재활용품 무인회수기에 투명페트병을 투입하면 1개당 10포인트씩 적립돼 누적 포인트가 2,000점 이상일 경우 수퍼민 누리집 스마트폰 앱에서 회원 가입 후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기계 화면에서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한 후 투입구가 열리면 라벨을 제거한 깨끗한 투명페트병을 넣으면 된다.

시 관계자는 “생수·음료 투명페트병의 이물질 함량이 낮아 순도가 높을수록 고품질로 재활용이 가능해 주민들의 참여가 필수”라고 말했다

/익산=이재춘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서비스 시행

군산시 시민납세과는 9일 지방세 납부의 편의성 및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자동이체 납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납부 서비스는 납세자들이 은행 계좌 혹은 신용카드 중 납부 방법을 선택해 위택스(wetax.go.kr), 주거래 은행 및 시청 시민납세과 방문 등으로 신청 할 수 있다.

지방세 정기분을 대상으로 고지서 1장당 800원, 전자송달 서비스까지 신청하면 1,600원이 할인되며, 신청일의 다음달 부과되는 지방세부터 적용된다. 해당 세목은 정기분 세목인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이다.

지방세 자동납부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방세 납부를 위해 은행·시청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번호, 납부 금액 등을 일일이 입력하고 송금해야 하는 수도도 될 수 있다.

다만 자동이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가산금(3%)이 발생한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청암산 멧돼지 포획... 21일 입산통제

군산시는 청암산 탐방로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오는 21일 청암산 입산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암산 통제에는 시민과 탐방객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총기를 이용한 멧돼지 포획 활동을 실시하기 위함이다.

최근 청암산 인근 지역주민과 탐방객으로부터 멧돼지 출몰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 및 농작물 피해발생 민원이 있어, 탐방객과 지역주민의 안전 도모를 위해 실시된다.

이날 군산경찰서의 협조로 탐방객 입산을 통제하고 군산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도움을 받아 멧돼지 포획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오는 21일 포획 활동 실시로 청암산 입산을 통제하니, 청암산 탐방 애호가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